

2월 주일 예배 대표 기도문

2월 주일 예배 대표 기도문

2월 주일 예배 대표 기도문으로 은혜로운 예배를 준비하시는 성도님들께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새해가 시작되고 겨울의 끝자락에서 봄을 기다리는 2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더욱 의미 깊어지는 시기입니다. 교회에서 대표기도를 맡으신 분들이나 기도 준비에 도움이 필요한 성도님들을 위해 다양한 상황과 주제에 맞는 기도문을 준비했습니다.

2월 주일 예배 대표 기도문 1 - 새해 결심과 다짐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민수기 6:24)

새해가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난 2월, 우리가 세운 결심들을 다시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옵니다.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어지는 연약한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집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다짐했던 마음들이 벌써 흔들리고, 세상의 유혹과 바쁜 일상 속에서 주님을 잊고 살았던 지난 한 달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2025년이 이미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계획했던 일들 중 어떤 것은 이루어졌고, 어떤 것은 미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늘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2월을 시작하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처음 가졌던 뜨거운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일의 작은 실천들이 쌓여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코로나19가 지나간 후에도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가정들, 건강상의 문제로 고통받는 성도들, 가족 관계로 아파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정치적 갈등과 사회적 분열이 심화되고 있는 이 시대에, 주님의 평화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국민들이 서로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2월의 새로운 시작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계획이 아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힘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월 주일 예배 대표 기도문 2 - 겨울 끝자락의 소망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이사야 43:19)

긴 겨울이 조금씩 물러가고 봄의 전령이 들려오는 2월입니다. 추위 속에서도 새싹이 움트듯, 우리 마음에도 새로운 소망이 피어나는 계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일들을 기대하며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매서운 추위가 계속되는 겨울 끝자락에서도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길고 어두운 겨울밤이 지나고 조금씩 길어지는 낮 시간을 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를 읽습니다. 지난 겨울 동안 우리가 겪었던 어려움들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추운 날씨로 인해 몸과 마음이 움츠러들었던 시간들, 코로나19의 여파로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 건강 문제로 병원을 오가며 고생하고 있는 성도들의 아픔을 주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십니다. 얼어붙었던 땅 아래에서도 새생명이 준비되고 있듯이, 우리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새로운 역사가 준비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곧 찾아올 봄처럼, 우리 삶에도 새로운 기회와 축복이 찾아올 것을 기대합니다. 2월을 지나며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새로운 활력이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겨울 동안 잠시 쉬었던 여러 사역들이 다시 활발해지고, 성도들 간의 교제가 더욱 깊어지게 해주시옵소서. 특히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교회로 돌아와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높은 물가와 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정부와 기업들이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히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전 세계적으로도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여전히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중동 지역에 하루빨리 평화가 찾아오게 해주시옵소서. 굶주림과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3세계 국가들에도 주님의 도움의 손길이 닿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2월의 마지막을 향해 가면서 3월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게 해주시옵소서. 봄과 함께 우리 마음에도 새로운 열정과 비전이 생기게 하시고, 주님께서 계획하신 좋은 일들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월 주일 예배 대표 기도문 3 - 사랑과 감사의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16)

2월은 사랑의 달이라고 불립니다. 세상에서는 로맨틱한 사랑을 기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으로 삼고자 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 앞에서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드립니다. 영원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변함없이 사랑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2월이라는 달을 보내며 우리는 사랑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조건적이고 변하기 쉽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무조건적이며 영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그 사랑을 나누어 주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가정에서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간에 진정한 사랑이 흘러가게 해주시옵소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돌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청년들, 사회적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해주시옵소서. 교회 공동체가 이런 분들에게 따뜻한 가족이 되어드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세계 곳곳에서 사랑이 필요한 곳들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북한의 동포들, 난민으로 떠도는 사람들, 가난과 질병으로

고생하는 이들에게 우리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는 방법을 찾게 해주시옵소서. 작은 실천이라도 꾸준히 행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의 마음도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가족이 있는 것, 일터가 있는 것, 믿음의 공동체가 있는 것 등 당연하게 여겨왔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2월의 남은 기간과 곧 다가올 3월을 준비하며, 우리의 마음이 사랑과 감사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일에 힘쓰며, 매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월 주일 예배 대표 기도문 4 - 새로운 계절을 준비하며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전도서 3:1)

2월의 마지막 주를 보내며 곧 다가올 3월과 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옵니다. 계절의 변화 속에서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새로운 계절을 맞이할 준비를 다짐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계절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긴 겨울을 지나 이제 봄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이 시간에 감사와 기대의 마음으로 나아옵니다. 추위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따뜻하게 품어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겨울 동안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때로는 추위와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더욱 간절히 찾게 되었고, 때로는 실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더 가질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새로운 계절을 준비하며 우리의 마음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겨울 동안 잠들어 있던 꿈과 비전들이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과 달란트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새로운 계절에 맞는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공동체도 새로운 활력을 준비하게 해주시옵소서. 3월부터 시작될 새로운 프로그램들과 사역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준비되고 진행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히 새신자들을 맞이하고 양육할 준비를 잘 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나라도 새로운 계절과 함께 좋은 변화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경제가 회복되고 사회적 갈등이 치유되며, 북한과의 관계에서도 평화의 실마리가 보이기를 간구합니다. 새 학기를 시작하는 학생들과 새로운 직장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도 좋은 기회가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봄과 함께 희망의 소식들이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찾아오며,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들이 줄어들고, 가난한 나라들에도 발전의 기회가 주어지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계절의 변화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것에는 때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우리의 급한 마음을 진정시키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를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게 보호해 주시옵소서. 환절기 감기와 각종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새로운 활동을 시작하면서 다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좋은 일들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더 많은 주일예배 자료와 기도문이 필요하시다면 (클림트교회 주일예배 안내) (<http://klmc.church/klmc/worship/sunday-worship.do>)를 참고해 보세요.

더 많은 기도문 보러가기:
(대표 기도문 나눔터) <https://prayer-church.co.kr/>